

[현대 기록학의 이론과 사상 - 2018년 4월 15일 단톡방 보강 수업 내용]

2018년 4월 15일 오후 8:02, 노명환 교수님 : 일단 우리 조선시대 기록관리 논문 256페이지 부터 시작할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03, 노명환 교수님 : 어떻게 자연재해 기록이 왕권 견제를 할 수 있었지?

2018년 4월 15일 오후 8:03, 노명환 교수님 : 자연재해는 왕의 부덕함으로 해석되었는데, 왜?

2018년 4월 15일 오후 8:06, 노명환 교수님 : 우리 위에 있는 조선시대 관복을 볼까. 목은 둥글고, 혁대는 사각형. 천원지방을 상징. 이 천원지방 속에 인간이 존재. 하늘과 땅 그 속이 인간이 존재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함. 이것이 천지인 삼재의 조화.

2018년 4월 15일 오후 8:08, 노명환 교수님 : 그런데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임금이 이러한 조화를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야. 부덕한 것이지. 천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는 뜻. 그래서 자연재해를 기록한다는 것은 임금의 부덕을 기록하는 것이 되는데, 임금은 조심해야 돼.

2018년 4월 15일 오후 8:08, 노명환 교수님 :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가?

2018년 4월 15일 오후 8:08, 노명환 교수님 : 시간 가지고 의견부탁.

2018년 4월 15일 오후 8:10, 노명환 교수님 :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기호 상징체계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고. 이러한 에피스테메의 세계에서 자연재해 기록은 왕의 부덕을 기록하는 의미를 만들어 내는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해할 수 있을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11, 심은경 : 물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과거를 볼 때 현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 체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018년 4월 15일 오후 8:11, 박시현 : 음... 조선은 건국 당시에 정도전에 의해 신권이 강한 국가로 설계되었으나 결국 태종에 의해 왕권이 강화된 국가로 변모되었음을 들은 바 있습니다. 나라의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대신 측에서 왕에게 잘못을 묻기 위해 농사에 중요한 '날씨'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들은 실제로 "날씨가 왕의 탓"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날씨(로 대표되는 국정 전반)가 왕의 탓"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2018년 4월 15일 오후 8:12, 노명환 교수님 : 기록과 기록관리는 그 시대의 기호 상징 체계 속에서 정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2018년 4월 15일 오후 8:14, 박시현 : 고대시대에는 실제로 흉작이 나면 왕을 죽이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은 바 있어, 문자 그대로 왕이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ㅎㅎ

2018년 4월 15일 오후 8:14, 이해란 : 네.. 조선시대에는 샤머니즘이 남아있으며 풍수지리설 그리고 성리학이 복합적으로 있는시대라 그시대의 에피스테메를 생각한다면 국가를 통치하는 왕에게 그러한 것이 반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16, 안소연 : 네~ 성리학 세계관이 아닌 시대의 기록이었다면 단순한 자연재해, 기후변화 기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해당 시대의 성리학 세계관에서 연결됨으로 인해 개념적 구성물이 되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16, 노명환 교수님 : 성리학적 세계관을 들어가보면 우주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작동하고, 그 조화를 잘 지켜나가도록 왕은 천명을 받은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상징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봐. 자연재해의 물리적인 책임이 아니라, 왕의 조신을 이러한 체계 속에서 요구하기 위한.

2018년 4월 15일 오후 8:17, 노명환 교수님 : 자 우리가 서로 이해를 모아간다 생각되는데, 디자인 아카이브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 개념적 구성, 기호 상징 체계와 기록관리 관계 등에 대해서.

2018년 4월 15일 오후 8:17, 이해란 : 제천행사를 치루는 자가 부족의 왕이 된것처럼 조선시대에도 그러한 의미에서 왕에게 남아있는 상징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처럼

2018년 4월 15일 오후 8:18, 노명환 교수님 :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봐. 성리학이란 이전의 전통을 모은 것이니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19, 박시현 : 왜 하필 '날씨'를 기록할까 고민했는데, 혜란쌤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2018년 4월 15일 오후 8:19, 노명환 교수님 : 자, 여기에서 우리는 푸코의 에피스테메 개념을 잘 살펴보면 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19, Psh : 유교 사회는 천명을 중요시 하는 사회였고..실제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를 근원으로 했던 백성들에게 원성이 실제로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국정전반에 영향을 끼쳤기때문에 왕의 부덕이 곧 자연재해라고 자연스레 연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 시대가 지나오면서 자연재해는 왕의부덕이라고 상징화된거 같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19, 노명환 교수님 : 날씨는 그 시대가 농업이 근본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2018년 4월 15일 오후 8:21, 노명환 교수님 : 성리학 세계관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왕이 천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는 (부덕한) 상징적 뜻으로 이해되었어.

2018년 4월 15일 오후 8:22, 노명환 교수님 : 내가 강조하는 것은 그때의 가치체계를 보자는 것이니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22, 노명환 교수님 : 성리학 세계관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데, 그것은 왕이 천명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다는 (부덕한) 상징적 뜻

2018년 4월 15일 오후 8:23, 노명환 교수님 : 이것의 우리는 에피스테메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어. 오늘의 관점에서 말이 안되는.

2018년 4월 15일 오후 8:24, 노명환 교수님 : 하여간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기록, 기물관리의 역할이 그 시대의 가치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넘어가기로 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25,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가치 체계에서 자연재해 기록은 왕의 부덕에 대한 기록을 상징한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26, 심은경 : 네 가치체계에 의하면 설명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26, 양준호 : 그 시대를 지배하는 하나의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26, 노명환 교수님 : 그렇다면 기록 자체가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개념적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2018년 4월 15일 오후 8:27,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측면이 업워드가 제시한 기록의 물리적, 논리적 측면외에 개념적 구성의 측면이야.

2018년 4월 15일 오후 8:28, 노명환 교수님 : 우리는 디자인 기록에 대한 이해를 이러한 관

점에서 출발할 수 있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28, 박시현 : 기록은 기록 그 자체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 '개념적 구성'의 의미가 맞을지요, 교수님?

2018년 4월 15일 오후 8:29,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기호학, 상징학 이론을 기록학에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30, 이해란 : 개념적 구성자체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것인데 기록과 기록하는 사람사이의 상호작용에의해 기록에 대한 개념적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기록에는 기록하는사람 배경사회가 다들어가니 다른요소들이 다 연관되지않을가여 시현 쌤

2018년 4월 15일 오후 8:30, 노명환 교수님 : 맞다고 보고. 여기에서 우리는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고. 조선시대의 경우 성리학적 세계관, 기호 상징 체계를 기록과 기록관리의 시대적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맥락이 푸코의 개념에서 에피스테메.

2018년 4월 15일 오후 8:30, 노명환 교수님 : 이해란 님 좋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31, 박시현 : 감사합니다, 교수님, 혜란쌤 :)

2018년 4월 15일 오후 8:31, 노명환 교수님 :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성주의를 공부하는데, 업워드 교수는 컨티뉴엄에서 바로 이 구성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컨티뉴엄이란 끊임 없는 개념적 구성.

2018년 4월 15일 오후 8:32, 노명환 교수님 :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아키비스트는 끊임없이 의미적으로 생각하고 만들고 개척해야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33, 노명환 교수님 : 그 실례를 우리는 디자인 아카이브에서 보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33, 노명환 교수님 :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생산을 임금이 왜 막지 못했을까?

2018년 4월 15일 오후 8:34, 노명환 교수님 : 의견부탁.

2018년 4월 15일 오후 8:35, 심은경 : 기록이 시대의 가치체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처럼 임금도 가치체계에 속한 사람이었기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2018년 4월 15일 오후 8:36, 노명환 교수님 : 바로 그것. 그것을 깨면 그 시대의 사람, 하물며 왕이 될 수 없는. 그것은 성리학적 세계관을 위배하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를 파괴하는 것이 되니 그럴 수 없다고 볼 수 있겠어.

2018년 4월 15일 오후 8:36, 노명환 교수님 : 공론장으로서의 기록보존소 논문 읽어주었는지? 유럽의 중세 기록관리가 어땠지?

2018년 4월 15일 오후 8:37, 이해란 :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이에 감시이자 견제역할이 사관제도이며 왕이 기록을 막는다는것은 성리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37, 박시현 : 고대나 로마시대와는 달리, 왕의 통치를 위한 기록관리였고, 따라서 비밀기록관리 형식이었다고 읽었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37, Psh : 애초에 사관이 기록하는것은 왕조차 어떻게 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왕 자신도 그 사회에서 자연재해가 자신의 부덕이라고 인정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38, 안소연 : 중세시대에는 기록보존소가 권력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여 비밀 아카이브즈가 되었기 때문에 공론장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보았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38, 노명환 교수님 : 바로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기록관리가 왜 그렇게 철저하였는가하는 질문에서, 그냥 의식 수준이 높았다 하고 답하지 않고,

이러한 그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2018년 4월 15일 오후 8:38, 이해란 : 아테네시대의 공론장이 권력자로 (칼을진사람)에 의해 통치의수단이 되었습시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40, 노명환 교수님 : 안소연, 이해란 좋고. 유럽 중세의 통치 시스템과 기록관리 시스템을 보면 조선시대의 것이 얼마나 수준 높은 것인줄 우리는 알 수 있어.

2018년 4월 15일 오후 8:41, 박시현 : 기록관리가 통치의 수단이었던 했지만, 단순히 왕의 참고용이 아닌 왕의 통치에 다른 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왕은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41, 노명환 교수님 : 나는 외국 학자들하고 이러한 점을 많이 논의해왔고. 조선시대의 개념적 구성과 그 제도.

2018년 4월 15일 오후 8:41, 이해란 : 조선시대는 권력의 통치아래에 잊지않는 독립적인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42, 이해란 : 일제가 들어와 식민통치를 기록으로 하기전까진말이죠
πππ

2018년 4월 15일 오후 8:42, 노명환 교수님 : 그래서 정도전은 기록관리를 재상의 권한에 두고, 이를 통해 왕권을 견제하고 재상중심주의를 실현하려 했어.

2018년 4월 15일 오후 8:42, Psh : 조선시대는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다른 시대보다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신권의 강화로부터 사관제도가 발전했다고도 볼수있을거 같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44, 박시현 : 성리학 사상이라는, 당대 사회의 에피스테메가 기록을 단순한 물자체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 다른 이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를 갖는, 개념적 구성물로 만든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 15일 오후 8:45, 노명환 교수님 : 그렇게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 제도에 대해 다음에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데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기호 상징체계에 의한 것이지, 기록관리 자체가 그러한 힘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잖아. 왕이 얼마든지 파괴해 버릴 수도 있는데.

2018년 4월 15일 오후 8:47, 노명환 교수님 : 유럽은 중세를 넘어 시민혁명을 이루고 공론장으로서의 기록보존소 방향으로 발전해 갔고, 우리가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에피스테 관점에서 개념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승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보고, 여러분의 몫이라 보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49, 노명환 교수님 : 서양에서 고딕식 세계관에서의 의상, 건축 등을 잠깐 보았지? 조선시대 천원지방에 대해서도. 옷하나도 상징이 들어 있는. 그 상징을 통해 표현하고 소통하는. 디자인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대단하지.

2018년 4월 15일 오후 8:49, 노명환 교수님 : 그 상징 체계는 정치 경제 사회와 연결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50, 박시현 :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ㅎㅎ

2018년 4월 15일 오후 8:50, 노명환 교수님 : 인간의 삶은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소통, 표현. 우리는 그 소통과 표현을 기록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51, 노명환 교수님 : 그 기록은 다시 디자인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51, 노명환 교수님 : 우리 함께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

2018년 4월 15일 오후 8:52, 노명환 교수님 : 내가 포르쉐 아카이브 예를 들었지만, 이 영역은 넘 중요.

2018년 4월 15일 오후 8:52, 노명환 교수님 : 앞에서 심서영이 생각의 대전환을 이야기 해주

고 이해란이 이성과 감성의 기록화를 강조해주었는데.

2018년 4월 15일 오후 8:54, 노명환 교수님 : 기호 상징, 개념적 구성, 구성주의 등 엮어서 이해하는 것 어느 정도 되지. 기호 상징과 관련하여 샤머니즘, 어떤 특정 종교 등 종교성이 큰 작용을 하는데, 하구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기호 상징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은 이도순선생 활약 기대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8:57, 노명환 교수님 : 논문들 더 좀 읽어주고. 앞으로 대화 많이 하기로 하고. 다음 번에는 철학사 책에서 비트겐슈타인 부분 읽어보아 주고. 도큐멘테이션 논문에서 338페이지 부터 부르디외의 아비투스 개념 읽어주고, 에피스테메와 유사한. 다음에 설명하겠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9:00, 노명환 교수님 : 다음 주 일요일에 보고. 그 안에 또 정리에서 글 올리겠고. 27일 6시 반 외대 역사관에서 만나고. 그 전시된 기록물에서 기호 상징 체계 개념적 구성물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5월 25일에는 환경부 이경훈 기록연구사가 환경부에서 기록을 가지고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하여 활용하는지 발표해 주기로 했고. 그때 공기록 관리에서 활용과 개념적 구성문제 더 이야기 하기로 하고.

2018년 4월 15일 오후 9:00, 노명환 교수님 : 수고들 많았고. 잘 지내고.